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완공을 앞둔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완공을 앞둔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당중앙의 사상과 뜻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위훈의 창조자들이 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 순결한 애국정신을 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건설자들의 높은 정치열의와 로력적헌신에 의하여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놀라운 건설기적이 창조됨으로써 수도 평양은 주체사상과 주체문화, 우리식 문명의 중심지로, 인민의 리상이 꽃피어나는 위대한 도시로 그 면모가 더욱 훌륭히 전변되게 되었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수도건설 5개년계획의 첫째인 2021년도 계획에 따라 송신, 송화지구에는 56정보의 영역에 현대적이며 특색있는 80층초고층살림집을 비롯하여 1만세대의 다양한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보건, 교육, 편의봉사시설들이 편리하게 배치되고 여러 휴식공원, 고가다리, 장식구조물들이 주민지구와 예술적조화를 이루며 특색 있게 건설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거리의 전경이 정말 불만하다고, 주체성과 민족성, 현대성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당의 건축미학사상이 정확히 집행되었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대회가 제시



인민의 도시로 꾸리는것이 중핵이라고 하시면서 각급 설계기관들에서는 현대발전 추세의 요구에 맞게 자연 지리적조건과 수도시민들의 편의성을 첫자리에 두고 거리 및 구획형성과 도로 설계를 잘하며 다양성이 보장된 여러 건축물들의 예술적결합을 증시하고 특히 모든 요소들의 현대성을 최대로 부각시키는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또한 건축물들의 직관적 장식효과를 정치, 사상, 문화적감정에 맞게 잘 살리며 인민성과 현대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교육, 보건, 체육, 문화후생시설들과 상업, 금양봉사기지를 잘 배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부문에서는 도시의 생태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심을 두고 도시복화를 비롯한 문화적인 환경조성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전체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활화적

한 수도건설 5개년계획의 첫째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통하여 우리의 건축이 또한 한계단 발전의 로정을 걸었다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는 변혁적인 실체를 창조해내는 대규모건설실천투쟁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과 묘리들을 적극 일반화하여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면서 국가적으로 건설력량을 지속적으로 장성시키며 건설속도를 가속화해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대적인 1만세대의 살림집을 짧은 기간내에 우리의 힘으로 훌륭히 일떠세운것은 우리 당의

건축미학사상의 정당성과 주체적자립경제의 잠재력,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궁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번에 건설한 살림집들의 설계와 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었다고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며 수도건설의 새로운 발전전기를 마련하고 우리 수도의 발전상을 온 세상에 시위하는데 이바지한 전체 건설자들에게 당과 정부의 위임에 따라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머지않아 인민들이 자기 손으로 준공테프를 끊고

보금자리에 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고, 자신의 소망이 또 한가지 풀리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태양절까지 인민들이 새집들이를 할수 있게 완벽하게 마무리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수도를 사회주의강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답게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려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수도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하고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뚜렷한 자기 특징이 살아나는 나라의 심장부,

기세는 하늘끝에 닿았으며 새로운 평양 속도, 건설신화의 위대한 창조자, 선구자가 될 의지로 격양되어있었다.

원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는 불변의 신념을 피륙는 심장마다에 만장약한 전체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사회주의문명창조의 새로운 투쟁, 새로운 승리로 부르는 당중앙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우리 수도의 번영을 위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을 위하여 한몸 다 바쳐갈 드높은 결의에 충만되어있었다.

본사기자

